

국가공단 입주기업 피해 305억원!

화물연대 파업으로 3단지 7사 피해 ... 수출중단 피해 239억원 달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원자재 수입에 차질이 생기고 선적이 지연되면서 국가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도 300억원을 넘어섰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전국 33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창원과 구미 등 3개 단지 7개 입주기업에서 305억1000만원의 조업 및 수출 차질액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구미공단의 오리온전기와 창원공단의 한국철강 등 모두 2개 기업이 생산차질을 빚으면서 65억7000만원의 피해가 생겼다. 또 창원공단의 4개 기업과 녹산공단 등에서 선적지연에 따라 239억4000만원의 수출차질이 발생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국가공단 피해현황

(단위: 100만원, 개)

단 지	생산중단 피해	수출중단 피해	합 계	피해 예상기업
창 원	5,600(1)	23,700(4)	29,300(5)	6
울 산 · 온 산	-	-	-	7
구 미	970(1)	-	970(1)	9
녹 산	-	240(1)	240(1)	-
합 계	6,570	23,940	30,510(7)	22

산자부는 현재 조업중단 기업이 2개에 불과하지만 사태가 3일 이상 지속된다면 추가로 22개가 공장가동을 중단하거나 수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5/16>